

##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강 순 화 이 은 경 양 난 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본 연구는 최근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학업우수생 112명과 학사경고생 134명, 총 246명의 특성을 토대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사경고생과 성적우수생이 사회/환경·학업·성격 변인들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모형과 학업지원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사경고집단의 경우 학교 만족도나 학부/전공학과 만족도 등이 낮고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등 전반적으로 학업동기가 낮게 나타났으며, 학습습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및 시간관리 등 구체적인 학습방법의 미숙함이 학업동기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업부진 대학생들에 대한 학업동기 고양을 위한 심리적 지원, 구체적 학습기술과 관련된 학습방법 지원, 그리고 이들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을 학업지원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심리적 지원과 구체적인 학습방법 지원이 포괄된 학업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였다.

21세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로 요약되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우리에게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대학도 대학자체의 생존을 위해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통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점 은행제,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 편입학제도의 확대, 상대평가 등 대학 내의 최근 변화들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결국 사회와 대학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전공, 학과목, 대학생활 등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하기도 했지만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학생들간의 경쟁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업은 학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적 성취는 대학 졸업 후 진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취는 이런 가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학업에서 좌절경험을 하는 학사경고생 및 제적생들이 겪게 되는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학사경고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업 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학업 이외의 영역에서도 소극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낮은 학업 성취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어느 정도 수준의 학업성취를 이루지 못할 경우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학부제로 입학한 경우 전공 선택시 어려움

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등 대학 이외의 일상생활에서도 위축감과 함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 연속된 학사경고로 인해 제적을 당하는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큰 좌절감을 경험할 뿐 아니라 진로선택과 인생계획에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학업부진인 학생들과 학사경고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학 입학 당시에는 학업 성취 면에서 비등했던 학생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학업지원 프로그램과 모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대학생자원의 잠재력 극대화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이란 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첫째, 학사경고생과 성적우수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환경·학업·성격 변인들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모형 및 학업지원 집단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 이론적 고찰

대학에서 진행된 학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봄으로써 학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참고로 삼고자 하였다.

우선 강순화(1997)가 개발한 '학습향상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관련 개인적 특성

에 대한 이해 돕기, 학업관련 스트레스 해소 및 시간관리, 구체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점검 및 설명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학업관련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학습기술과 태도변화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자기이해와 관련된 심리적 훈련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희백, 황병철, 장현갑(1996)이 개발한 '공부방법 훈련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습관 진단, 공부계획 만들기, 정신집중능력 향상, 기억능력 향상, 교재 이해능력 향상, 어휘 학습능력 향상, 논문 및 레포트 작성하기, 시험치기 등 총 9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학습방법과 기술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정륜(1991)은 '학습태도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시간관리 전략과 정신집중 전략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관리 전략 부분은 1주, 주당 2시간에 걸쳐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강의, 공부스타일 확인, 현재생활의 진단, 일상활동 계획표 작성 및 실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집중 전략은 2주, 주당 2시간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며, 강의, 주의 산만 요인표 작성, 주의 산만 요인 분석표 작성, 환경적인 계획과 준비표 작성, 개인적인 계획과 준비표 작성, 과제 관련적인 계획과 준비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인 학습습관 형성을 위한 실제적인 연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형득, 한상철(1987)이 '학습전략 훈련'의 프로그램 시안을 내놓은 것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단계, 1단계당 6회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선 설정과 자기계약, 자신의 학습방법과 태도 돌아보기, 학습과제를 위한 시연전략, 정교화 전략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

램에서는 학습기술과 관련된 행동변화와 함께 행동수정을 위한 인지적 연습을 첨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남옥(1985)과 이희도, 양병한(1987)이 읽기 기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학업지원 프로그램들은 주로 학습습관의 개선과 변화,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업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 실패의 원인이 학습습관의 부족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돕기에는 다소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모 대학의 1998년 2학기에 1차 또는 2차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과 같은 학기에 3.75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차 학사경고생 98명(전체의 36.2%), 2차 학사경고생 48명(전체의 40%)이었으나 불확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34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학기에 3.75 이상의 평점을 받은 성적우수생 중 학사경고생의 학과 및 학년을 짚어서 성적우수생 200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본 연구에 응한 학생은 112명이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학업과 관련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Russell과 Petric(1992)의 조직모형을 참조하여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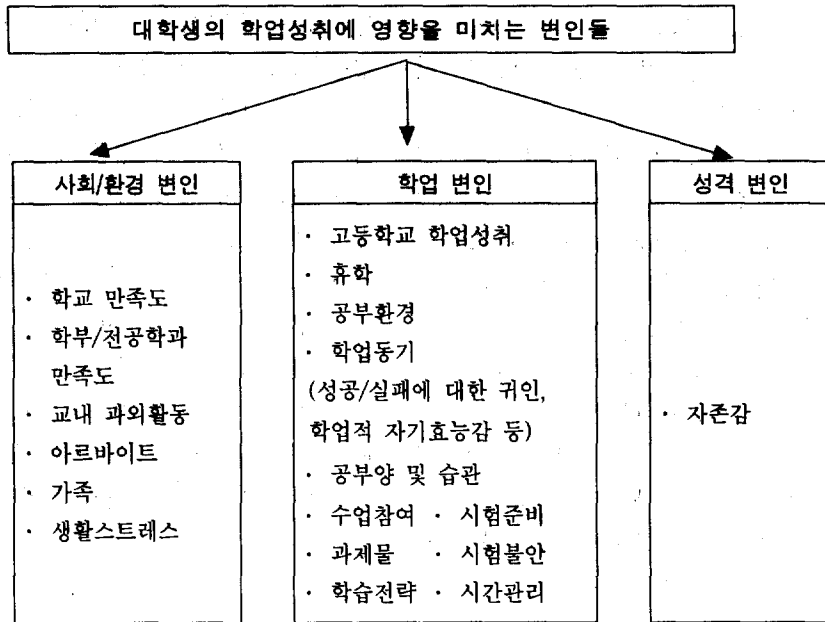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미치는 변인들'을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회/환경 변인, 학업 변인, 성격 변인 등 세 개의 상위변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예비 조사를 거쳐 총 16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중 자존감의 측정 도구로는 김문주가 번안한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학업동기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서는 박인영(1998)이 개발한 척도 중 일부를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 3. 조사절차

학사경고생들과 성적우수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연구를 동시에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화로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 후 우편 혹은 직접 대면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사경고생들과 성적우수생들의 특성들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 4. 분석절차

본 자료의 분석은 문항의 내용에 따라 분석을 달리하였다.

우선, 학사경고생과 우수학생들의 전반적인

표 2. 학교 만족도 영역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 (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학업관련시설 만족도	3.17(.74)	3.49(.70)	3.43
강의내용 및 방식 만족도	3.05(.82)	2.90(.97)	-1.25
성적평가방식 만족도	2.96(.62)	3.19(.78)	2.47*
성적평가방식 만족도	2.57(.70)	3.04(.80)	4.85***
교수님들과의 관계 만족도	2.71(.76)	2.86(.87)	1.41

\* p < .05 \*\*\* p < .001

특성 비교를 위해서는 문항별로 백분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사경고생과 우수학생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1차 학사경고생과 2차 학사경고생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Likert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에 대해 General Linear Model (GLM)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1차경고 집단과 2차경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이들 집단을 묶어 경고집단으로 분류하여 우수집단과 비교하였다. 또한 일부 변인에 대해서는 집단내 변인간 차이를 보기 위해 paired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통계적인 점수로 처리하기 어려운 명목 척도(nominal scale)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chi^2$  검증을 실시하여 1차 경고집단과 2차 경고집단 간에 집단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경고집단으로 묶어 우수집단과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에 의해 처리하였다.

## 학사경고집단과 성적우수집단의 특성 비교

### 1. 사회/환경 변인

#### 1) 학교 만족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업관련 시설

만족도, 학교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집단과 경고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강의내용과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_{209}=2.47, p < .05$ ).

성적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경고집단이 우수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242}=4.85, p < .001$ ).

#### 2) 학부/전공학과 만족도

학부/전공학과에 들어온 경로(고교 졸업 후 바로 진학), 학부/전공학과 내 인간관계 만족도에서는 우수집단과 경고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의 학부/전공학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_{237}=5.09, p < .001$ ).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경고집단의 경우 대부분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는 원하지 않았던 학과라는 반응이 많아 이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 수준이 우수집단에 비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부/전공학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두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 $t_{229}=3.60, p < .001$ )를 보

표 3. 학부/전공학과 만족도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집단	성적우수집단	t
학부/전공학과 선택 만족도	3.29(.92)	3.87(.86)	5.09***
학부/전공학과 수업 만족도	2.93(.81)	3.32(.87)	3.60***
교수님들과의 관계 만족도	2.70(.73)	3.06(.91)	3.41**
인간관계 만족도	2.89(1.03)	3.11(.92)	1.76

\*\* p <.01 \*\*\* p <.001

여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전공학과 교수님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두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t_{241}=3.41, p <.01$ ). 즉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학부/전공학과 교수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내 과외활동

교내 과외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의 학생들중 1/3정도가 과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과외활동의 종류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11.19, p <.05$ ). 즉 경고집단은 대부분이 동아리활동(85.0%)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우수집단은 동아리(50.0%), 학생회(17.5%), 학회(15.0%), 기타 활동(17.5%) 등 다양한 과외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경고집단과 우수집단의 각각 61.4%, 61.2%의 학생들이 과외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4)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 아르바이트 종류에서는 우수집단 대부분이 과외가 가장 주된 반응이었으나, 경고집단에서는 과외 외에도 음식점 서빙, 판매 등과 같이 비교적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고집단의 경우 시간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가족 변인들

표 4에 나타나듯이 학업과 관련해 거주환경(공부환경), 부모의 생존여부와 형제순위, 부모

표 4. 가족 변인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3.48(1.07)	3.71(.88)	1.82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3.90(.91)	4.29(.70)	3.63***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3.98(.71)	4.24(.65)	2.94**
부모의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3.16(1.13)	2.79(1.07)	-2.57*

\* p <.05 \*\* p <.01 \*\*\* p <.001

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경고집단과 우수집단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경고  $t_{106} = -6.90, p < .001$ ; 우수  $t_{130} = -4.67, p < .001$ )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우수집단이 경고집단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243} = 3.63, p < .001$ ).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살펴 본 결과 부모의 기대수준은 우수집단이 더 높았지만( $t_{241} = 2.94, p < .01$ ), 부모의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고집단이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244} = -2.57, p < .05$ ).

#### 6) 생활스트레스

우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모두 학업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고집단보다는 우수집단이 보다 많은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38.8%; 우수 52.7%). 경고집단이 학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학부/전공학과 관련 스트레스(17.1%), 그 다음이 비효율적 시간관리(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집단은 학업, 경제적 압박(9.8%)과 비효율적 시간관리(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전공학과 관련 스트레스도 결국 학업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면 경고집단이나 우수집단 모두 절반 이상의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상의 스트레스가 학업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 살펴 본 결과, 모두 학부/전공학과 관련( $t_{240} = -2.28, p < .05$ )·과외활동관련( $t_{130} = 2.17, p < .05$ )·아르바이트( $t_{134} = 2.49, p < .05$ ) 관련 스트레스 등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전공학과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정도는 우수집단보다는 경고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는 경고집단보다 우수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우수집단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표 5. 스트레스 대처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과제에 집중하기	13.24( 2.75)	14.44(2.37)	3.60***
사회적 지지의 추구	12.95( 3.30)	14.13(2.85)	2.93*
타협	13.61( 2.85)	13.78(2.47)	.49
긍정화	14.00( 3.20)	14.49(2.96)	1.23
기분전환	10.44( 3.20)	10.29(3.59)	-.34
스트레스 대처 총점	64.33(11.24)	67.12(9.60)	2.03*

\* p < .05 \*\*\* p < .001

할 수 있다. 공부환경·학교·성격·가족관계·이성친구·교우관계·경제적 압박·비효율적 시간관리 관련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비교해 본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각종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234}=2.03, p < .05$ ).

과제에 집중하기, 사회적 지지의 추구, 타협, 긍정화, 기분전환의 5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영역 중 과제에 집중하기( $t_{241}=3.60, p < .001$ )와 사회적 지지의 추구( $t_{241}=2.93, p < .01$ )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우수집단은 다른 일들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구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학업 변인

### 1)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현재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집단의 평균 내신등급은 2.62로 경고집단의 평균 내신등급 3.37에 비해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도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t_{202}=-2.40, p < .05$ ).

### 2) 휴학경험

휴학경험을 살펴본 결과 경고집단(휴학경험 있음 23.5%, 없음 76.5%)이 우수집단(휴학경험 있음 7.2%, 없음 92.8%)에 비해 휴학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1.86, p < .01$ ).

휴학이유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휴학을 위해 혹은 재수하기 위해, 그리고 어학연수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고집단은 성적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공부환경 만족도

공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 학업동기

학과공부에 대한 느낌을 자유반응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우수집단은 대부분 학과 공부가 재

표 6.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고등학교 내신등급	3.37(2.37)	2.62(2.11)	-2.40*

\* p < .05

표 7. 학업동기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학업성적에 대한 성취욕구	2.73(.90)	4.21(.65)	14.89***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의 중요성	3.74(.76)	4.12(.58)	4.35***

\*\*\* p < .001



미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보고한 반면, 경고집단은 대부분 지겹다, 어렵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보고하였다.

학업성적에 대한 성취욕구를 살펴 본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높은 성취욕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_{234}=14.89, p < .001$ ).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의 중요성도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239}=4.35, p < .001$ ).

#### 5)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_{235}=4.14, p < .0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하위영역으로 살펴 본 결과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_{237}=9.14, p < .001$ ).

#### 6) 성패귀인

학업적 성공 및 실패경험에 대한 귀인에 있어서 두 집단의 차이를 Winer(1986)의 통제소재, 안정성, 통제가능성의 삼차원 모형에 따라 조사하였다.

학업적 성패경험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통제가능성의 삼차원 귀인양식 각각에 대해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고집단은 우수집단에 비해 성공경험에 대해서는 외적귀인( $t_{239}=-2.55, p < .05$ ), 통제가능귀인( $t_{238}=-1.99, p < .05$ )을, 실패경험에 대해서는 통제가능귀인( $t_{237}=-2.99, p < .01$ )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패경험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외적귀인보다는 내적귀인을(성공경험: 경고  $t_{109}=8.30, p < .001$  우수  $t_{129}=4.52, p < .001$ ; 실패경험: 경고  $t_{108}=4.15, p < .001$  우수  $t_{128}=5.81, p < .001$ ), 불안정적귀인보다는 안정적귀인을(성공경험: 경고  $t_{109}=6.43, p < .001$  우수  $t_{129}=4.29, p < .001$ ; 실패경험: 경고  $t_{108}=4.17, p < .001$  우수  $t_{128}=5.24, p < .001$ ), 통제불가능귀인보다는 통제가능귀인을(성공경험: 경고  $t_{109}=5.04, p < .001$  우수  $t_{129}=2.17, p < .001$ ; 실패경험: 경고  $t_{108}=5.28, p < .001$  우수  $t_{128}=11.95, p < .001$ )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공부양 및 습관

하루 공부시간의 양은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45.67, p < .001$ ).

예습 복습 여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 $\chi^2_{\text{예습}}=13.80, p < .01, \chi^2_{\text{복습}}=10.34, p < .01$ ). 경

표 8.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과제난이도 선호	11.11( 3.37)	11.77( 3.06)	1.61
자기조절 효능감	36.98( 7.02)	44.25( 5.34)	9.14***
자신감	31.26( 7.91)	30.43( 7.21)	- .85
학업적 자기효능감 총점	79.39(14.68)	86.46(11.68)	4.14***

\*\*\* p < .001

표 9. 학업에 대한 성패구인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성공에 대한 귀인	내적/안정적/통제가능(공부방법,습관)	3.33(.89)	3.45(.90)	1.06
	내적/안정적/통제불가능(능력)	3.03(.88)	3.19(.83)	1.45
	내적/비안정적/통제가능(시험준비도)	4.08(.82)	3.98(.78)	-.98
	내적/비안정적/통제불가능(컨디션)	2.96(.97)	2.95(.91)	-.13
	외적/안정적/통제가능(교수원하는 답안작성)	3.78(.89)	3.71(.82)	-.59
	외적/안정적/통제불가능(과제난이도선호)	3.17(.90)	2.98(.85)	-1.65
	외적/비안정적/통제가능(같이공부할 친구)	2.53(1.05)	2.04(1.03)	-3.67***
	외적/비안정적/통제불가능(시험 운)	2.78(.98)	2.76(1.03)	-.20
	내적	13.38(2.30)	13.57(1.92)	.68
	외적	12.25(2.43)	11.48(2.26)	-2.55*
	안정적	13.29(1.97)	13.34(1.97)	.17
	비안정적	12.35(2.54)	11.74(2.21)	-1.97
	통제가능	13.69(2.08)	13.17(1.93)	-1.99*
	통제불가능	11.95(2.40)	11.90(2.27)	-.15
	실패에 대한 귀인	내적/안정적/통제가능(공부방법,습관)	3.46(.95)	3.13(1.02)
내적/안정적/통제불가능(능력)		2.47(.95)	2.35(.95)	-.98
내적/비안정적/통제가능(시험준비도)		4.30(.85)	4.05(1.04)	-2.05*
내적/비안정적/통제불가능(컨디션)		2.82(.92)	2.97(.97)	1.27
외적/안정적/통제가능(교수원하는 답안작성)		3.65(.98)	3.75(.83)	.91
외적/안정적/통제불가능(과제난이도선호)		3.27(.85)	3.25(.98)	-.17
외적/비안정적/통제가능(같이공부할 친구)		2.16(.89)	1.78(.86)	-3.33**
외적/비안정적/통제불가능(시험 운)		2.59(.91)	2.72(.98)	1.02
내적		13.04(2.25)	12.50(2.13)	-1.87
외적		11.68(2.41)	11.50(2.28)	-.60
안정적		12.85(2.27)	12.47(2.25)	-1.27
비안정적		11.83(2.13)	11.52(2.06)	-1.16
통제가능		13.55(2.13)	12.73(2.10)	-2.99**
통제불가능		11.12(2.34)	11.27(2.51)	.48

\* p < .05 \*\* p < .01 \*\*\* p < .001

고집단이 우수집단에 비해 연습 및 복습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한 학습량 완수정도를 살펴 본 결과 우수집단은 경고집단에 비해 계획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계획한 학습량은 끝까지 다 마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_{242}=3.39, p < .01$ ).

#### 8) 수업 참여

지난 학기 결강여부를 살펴본 결과 우수집단(21.6%)에 비해 경고집단(90.3%)의 결강 경험이 많아 경고집단의 수업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18.54, p < .001$ )

결강경험 학생들에게 결강 빈도를 자유응답

표 10. 독서 및 학습전략 사용정도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독서시 개요 파악하기	3.55(1.02)	3.95(.94)	3.15**
독서시 나중에 볼 필요 있는 부분 체크하며 읽기	3.63(.93)	4.16(.88)	4.60***
독서 후 머리속에 내용 정리	3.36(.87)	3.66(.79)	2.84**
교과서·참고서·노트 등 비교 학습	3.42(.92)	4.15(.83)	6.37***
독서 및 학습전략 총점	13.98(2.65)	15.92(2.40)	5.89***

\*\* p < .01 \*\*\* p < .001

하도록 한 결과 우수집단은 학기 당 1-2회(약 50%), 주 1-2회(약 50%)인 반면 경고집단은 대다수 학생이 주 1-3회 정도 결강을 하였으며, '거의 모두 결강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어 우수집단에 비해 결강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강 이유로는 우수집단은 몸이 아파서 또는 늦잠을 자거나 다른 피치 못할 일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경고집단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단순하게 수업에 들어가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아 이들이 학업자체에 대한 동기수준이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수업시간의 학습태도를 살펴 본 결과 경고집단은 우수집단에 비해 학습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52.11$ ,  $p < .001$ ).

#### 9) 과제물

과제물에 노력을 투자하는 정도에서 경고집단이 우수집단에 비해 노력을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7.53$ ,  $p < .001$ ).

특이하게도 과제물 작성에 있어서는 경고집단뿐만 아니라 우수집단도 약 1/3 정도의 학생들이 과제물 작성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과제물 작성에서는 두 집단 학생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물 작성

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서는 두 집단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 10) 독서 및 학습전략

독서 및 학습전략에서는 표 10에서처럼 개요 파악하기, 나중에 볼 필요 있는 부분 체크하며 읽기, 머리 속에 내용 정리, 비교 학습 등 4개 항목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t_{237}=5.89$ ,  $p < .001$ ).

#### 11) 시험관련 행동 및 능력

시험관련 행동 및 능력에서는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현실성 있는 계획 세우기, 시험공부 계획 실천, 교재 및 노트 내용 파악, 중요한 것 암기, 예상문제 답안 작성, 시험정보 얻기, 시험답안 효과적 작성 능력, 시험 후 틀린 문제 정답 확인 등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8가지 행동 및 능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_{239}=12.28$ ,  $p < .001$ ).

#### 12) 시험불안

시험불안 분석 결과 시험기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서는 표 12에서처럼 경고집단이 우수집단에 비해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t_{242}=-2.38$ ,  $p < .05$ ) 나타났다. 비록 불안을 느끼는 평균이

표 11. 시험관련 행동 및 능력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현실성 있는 계획 세우기	2.77(.94)	3.73(.92)	8.01***
시험공부 계획 실천	2.30(.84)	3.18(.96)	7.61***
교재 및 노트 내용 파악	3.19(.84)	4.27(.66)	11.30***
중요한 것 압기	3.37(.81)	4.39(.68)	10.71***
예상문제 답안 작성	2.16(.95)	3.06(1.18)	6.52***
시험정보 얻기	2.73(1.02)	3.28(1.12)	4.02***
시험답안 효과적 작성 능력	2.54(.76)	3.42(.80)	8.83***
시험 후 틀린 문제 정답 확인	2.35(1.04)	3.12(1.15)	5.46***
시험관련 행동 및 노력	21.44(4.36)	28.48(4.52)	12.28***

\*\*\* p < .001

2.52로 심한 불안강도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경고집단은 시험당시보다는 시험 전에 불안수준이 높아지므로 시험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없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험 볼 때의 불안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13) 시간관리

수업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생활영역의 우선 순위를 살펴 본 결과 우수집단은 전공공부(44.1%), 대인관계(21.6%) 순으로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고집단은 대인관계(30.1%), 취미생활(19.5%), 과외활동(15.8%) 순으로 시간 투자하는 등 두 집단간에 시간투

자 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62.67, p < .001$ ).

시간관리 전략을 비교해 본 결과 매일의 일과 점검, 자투리 시간의 활용, 우선 순위 정해 서 행동하기, 계획을 실천하기 등 4개 문항 모두에서 표 13에 나타나듯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시간관리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성격 변인

본 연구에서는 경고집단이 우수집단에 비하여 학업실패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질 것

표 12. 시험불안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시험이 가까워지는 시기의 불안	2.52(1.16)	2.20(.98)	-2.38*
시험볼 때의 불안	2.17(1.03)	1.99(.89)	-1.48

\* p < .05

표 13. 시간관리의 각 집단 평균과 차이검증 평균(표준편차)

변 인	학사경고	성적우수	t
일과 점점	3.33(.95)	3.66(.88)	2.80**
자투리시간 활용	2.59(.94)	3.31(1.01)	5.81***
일의 우선순위 파악해서 행동	3.72(.91)	4.14(.60)	4.27***
계획은 반드시 실천	2.99(.88)	3.72(.74)	6.90***
시간관리 전략	12.64(2.57)	14.84(2.18)	7.12***

\*\* p < .01 \*\*\* p < .001

이라고 가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결 론

### 1. 요약: 학사경고집단과 성적우수집단의 특성 비교

#### 1) 사회/환경 변인

우선 사회/환경 변인으로는 학교 만족도, 학부/전공학과 만족도, 교내 과외활동, 아르바이트, 가족 변인들, 생활 스트레스 등을 알아보았다.

경고집단의 경우 대학의 강의 내용방식이나 성적평가방식에서, 학부/전공학과 선택 및 학부/전공학과 교수와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학업동기 저하 및 학업수행 및 성취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과공부와 직접 관련없는 과외활동을 할 경우 시간이나 에너지 배분문제로 인한 학업 소홀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 교내 과외활동 참여 여부 및 만족도와는 달리 참여하고 있는 과외활동의 종류에서 두 집단이 차이를 보여 동아리 활동 여부가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다는 김원중(1998)의 연구결과와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도 학업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아르바이트 종류에서는 우수집단이 과외를 주로 하는 반면 경고집단은 과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관리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변인들 또한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관련해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에서만 집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우수집단이 경고집단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 상위 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어머니와 더 친밀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이민규(1994)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한편,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은 우수집단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학사경고로 인해 경고집단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낮춘 결과인지, 아니면 애초에 경고집단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이 낮아 학생들의 학업동기가 자극되지 못해 낮은 학업성취도

를 보이게 된 것인지 단정짓기가 어렵다. 한편 부모의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경고집단 학생들이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경고집단이 부모의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우수집단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해석된다.

생활스트레스는 학생들의 학업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항목으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을 꼽아 학업이 중요한 스트레스원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각종 스트레스가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경고집단은 학부/전공학과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더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학부/전공학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우수집단보다 낮았던 것을 상기해 볼 때, 학부/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학업수행 및 성취도를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우수집단은 과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집단이 학업성적에 대한 성취욕구가 높은 만큼 과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는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각종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제에 집중하기와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우수집단은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것이 높은 학업성취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학업변인

다음으로 학업 변인들로 조사된 것은 고등학

교 학업성취도, 휴학경험, 공부환경 만족도, 학업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패귀인, 공부양 및 습관, 수업 참여, 과제물, 학습전략, 시험준비, 시험불안, 시간관리 등의 하위변인들이었다.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우수집단이 경고집단보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성적이 고등학교 성적과 상관이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강승호, 1990; 이민규, 1994; 탁진국 외, 1996; Russell & Petrie, 1992)의 보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휴학경험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부적응의 결과인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고집단이 우수집단에 비해 경험율이 높았으며, 휴학 이유에서 경고집단에서는 성적 때문이라고 한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휴학 신청할 때 그 이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는 것이 적시에 학업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학업동기는 학생들의 학업수행, 노력의 양과 관련해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본 조사연구 결과 경고집단은 우수집단에 비해 학과공부에 대한 느낌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업성적에 대한 성취욕구도 낮았고,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의 중요성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수집단에 비해 징계집단이 대학성적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김정오 등(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만 가지고는 경고집단 학생들이 학업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욕구도 적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았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수행 능력 및 동기와 관련해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특히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경고집단이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계획 및 주의집중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낮음을 나타낸다.

공부 양 및 습관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직결되는 변인들이다. 분석 결과 평소 하루 공부시간에 있어서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습 및 복습여부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정오 등(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우수집단은 경고집단에 비해 계획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일단 계획한 학습량은 끝까지 다 마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참여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에 경고집단은 우수집단에 비해 결강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업시간의 학습태도에 있어서도 우수집단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물과 관련해서도 경고집단은 우수집단에 비해 과제물에 투자하는 노력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김정오 등(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과제물을 작성할 때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제물 작성 시에 느끼는 어려움에서 우수집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경고집단은 과제물 준비 시작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및 학습전략에서도 두 집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독서시 개요 파악하기, 독서시 나중에 불필요 있는 부분 체크하며 읽기, 독서 후 머리속에 내용 정리, 교과서·참고서·노트 등 비교 학습 등 좋은 독서 및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우수집단이 정계집단에 비해 구체적인 학습방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김정오 등(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습방법이나 학습습관이 학업성취도와 상관되어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시험관련 행동 및 능력 또한 학업성취도에 직결되는 변인으로서, 조사결과 우수집단이 경고집단에 비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행동 및 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학생들은 모두 시험과 관련해서 교재 및 노트 내용 파악, 중요한 것 암기에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험기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서 경고집단이 우수집단에 비해 높은 불안을 보고하였으나, 그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 볼 때의 불안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그렇지 않다고 반응하여 집단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고집단의 낮은 학업성취도에 시험불안이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과외활동 등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 학업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수업 외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생활영역을 조사한 결과 우수집단은 전공공부, 대인관계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경고집단은 대인관계, 취미생활, 과외활동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전공공부라고 응답한 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우수집단은 경고집단에 비해 일과 점검, 자투리시간 활용, 일의 우선순위 파악 해서 행동, 계획은 반드시 실천 등의 시간관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수집단은 아르바이트나 과외활동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시간관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전공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함으로써 학업에 지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성격변인과 학사경고 원인

성격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살펴 보았으나 경고집단과 우수집단 간에는 자존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고집단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학사경고를 맞은 이유 및 대처방안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지나 이에 대해서는 추수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학사경고집단을 대상으로 학사경고를 받게 된 주요 원인, 결정 과목, 대처 방안, 부모의 학사경고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학사경고를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전공에 대한 불만,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놀고 싶어서, 출석일수 미달, 대인관계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들이 기술되었다.

학사경고 결정 과목으로는 교양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학사경고를 받게 된 주요 원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반응과 함께 출석, 학업적 노력 등에 관한 응답이 많았다. 한편 1차 경고집단에 비해 2차 경고집단의 부모가 학사경고 사실을 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방향 모색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방향 모색을 시도한 주된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대학생들의 성적부진으로 인한 대학생활 부적응을 감소시키는데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잠재 학사경고생집단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생과 성적우수생에 대한 다각적인 특성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모형과 함께 구체적인 학업지원 집단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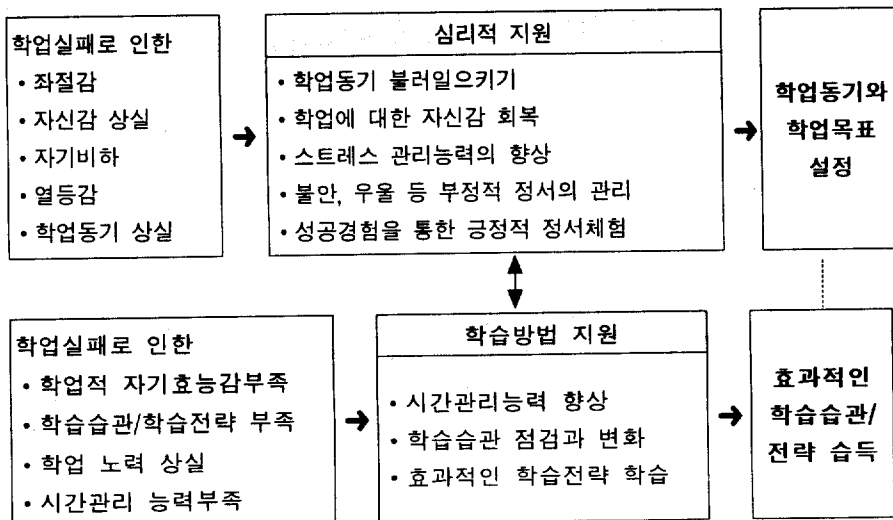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지원을 위한 심리적·학습방법 지원 모형



1)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모형

성적우수집단과 학사경고집단에 대한 특성 비교 연구결과를 검토하면서 대학에서의 학업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업동기 고양을 위한 심리적 지원, 세부 학습기술과 관련된 학습방법 지원, 그리고 이들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2).

① 학업동기 고양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적우수집단과의 비교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사경고집단은 학부 및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의 경우도 첫째, 학업에 대한 동기 결여, 흥미의 부족으로 인한 결석등이 맞물려 학업성취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업부진으로 인해 개인적 열등감을 갖게 될 소지가 많다. 비록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존감에서 학사경고집단과 성적우수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에서의 학업적 실패는 자신감 상실과함께 열등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좌절은 학생 개인의 대학생활 전반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 부진 학생들의 동기유발 및 손상된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적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② 학습 방법 지원이 필요하다.

학사경고집단과 성적우수집단의 특성 비교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경고집단은 우수집단에 비해 학습습관, 학습전략, 학업적 노력, 시간관리 능력 등이 부족하다. 따라서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학업동기 고취와 함께 구체적인 학습 기술이 수반된 학습 방법 지원이 뒷받침될 때

학업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학업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업지원을 위한 구조적 지원이란 학업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학습 방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 예를 들면 학생생활연구소와 같은 학업상담 담당 기관, 전과, 편입학, 휴학 및 학사경고 제적,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교무처, 학생처), 전공학과 및 학부의 지도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원(선배, 학부모 등)들간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계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인 틀을 의미한다.

학업지원을 위한 구조적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학업지원 관련 기구의 조직 확보와 함께 전문인력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업관련 교육이나 집단 프로그램 등의 진행을 위해 외국처럼 LEARNING RESOURCE CENTER와 같은 특정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학 여건하에서 학업지원 활성화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업상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기존의 학업관련 학생생활연구소 조직에 학업지원 전문상담가(대학별 담당)들의 충원과 함께 공간확충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 현재 몇몇 대학(연세대학교, 전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학사담당교 혹은 학사담당 상담원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문제는 개인의 사적인 대학에서의 학업생활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비밀을 보장하면서도 심리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상담자 자질을 갖춘 전문가

로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잠재 학사경고생 집단 발생의 예방과 대학에서의 학업동기를 유발시키는 차원에서 학생처 등과의 협의 하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등에 학업관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첨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기 중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공별 또는 학부별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학사경고라는 불필요한 경험의 사전 예방과 함께 학부제의 실시로 인한 신입생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소외감 및 소속감 상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도 의미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학업지원 집단프로그램의 모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설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지원과 구체적인 학습방법 지원을 포함한 학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형 개발을 시도하였다.

(1)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① 프로그램의 구성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모형으로 개발되었으며, 학습동기에 대한 점검과 자기소개, 시간관리 능력 향상, 학습습관 변화,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및 프로그램 정리 등총 5회로 구성되었다.

② 프로그램의 내용

【제 1 주】 학업동기 높이기

● 학업동기 점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대학에서의 공부에 대한 생각과 느낌 점검 후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나눈다. 학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나 느낌을 탐색하여 변화의 동기를 갖게 한다.

● 학업목표의 점검

장기적인 인생목표를 점검하고 중단기적 목표들을 탐색하게 한다.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비추어 대학공부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 인생목표와 연관지어 자신의 학업 목표를 함께 점검하도록 한다.

【제 2 주】 시간관리 능력과 학습 습관 변화시키기

● 시간관리능력 향상

학업생활과 관련하여 평소 시간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시간관리 방법을 통하여 학습습관에 적용하도록 기술을 습득한다.

● 학습습관의 점검

수업참여, 예복습, 노트필기, 레포트작성, 주의집중, 시험공부 계획, 시험공부 방법, 시험 답안지 작성방법, 시험 후 조치 등 평소 학습습관을 점검하여 학습행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제 3 주】 학습습관 변화시키기

● 효과적인 학습습관 익히기

준비된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참여, 예복습, 노트필기, 레포트작성, 주의집중의 필요성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평소의 학습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 시험에 대처하기

준비된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시험공부 계획, 시험공부 방법, 시험답안지 작성방법, 시험 후 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시험 관련 행동을 습득하게 하고 이러한 연습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습습관을 습득하게 한다.

【제 4 주】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시키기

● 시험불안 다루기

시험불안이 왜 생기는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험불안을 일으키는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대처하는 연습을 한 후,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시연해봄으로써 시험 불안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식 탐색하기

자신이 어떤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들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적어봄으로써 자신의 주요 스트레스 영역을 확인하고 대처방법의 효율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익히기

스트레스의 개념과 대처방법(정서적/문제해결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의 활동에서 확인한 자신의 스트레스 문제들에 개입된 비합리적 사고를 찾아보고 합리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공부를 방해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제 5 주】 프로그램 정리하기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정리하기

총 4회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웠던 점들을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학업장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피드백을 나누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밀감을 통하여 서로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모임의 마무리

③ 프로그램 진행일정 및 방법

본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회(2시간)를 원칙으로 하며, 총 5회(10시간)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회의 운영시간은 집단의 역동과 분위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진행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집단지도자(상담심리전문가 또는 훈련된 교육강사)가 담당한다.

집단지도자는 학업부진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구조화된 본 프로그램의 내용 기본으로 집단실제의 역동과 특성을 살려 본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학업지원 집단 프로그램의 목적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본 연구의 활용과 제한점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학업지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학업우수생과 학사경고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학사경고생과 성적우수생이 사회/환경·학업·성격 변인들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 모형과 학업지원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

학업우수생과 학사경고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따랐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대상 학생들이 특정 대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설문조사가 학생들이 자신의 학사경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몇몇 변인들에서 실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학업지원 집단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프로그램 활용 및 추수연구를 통해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과거에 비해 학업문제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에 대한 학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하

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학업지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보다 높아져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사경고생은 물론 학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총체적이며 현실적인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순화(1997). 대학에서의 학업증진을 위한 학습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33,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 연구소, 20-53.
- 강승호(1990). 대학 입학 선발고사의 예언타당도 분석. *교육학연구*, 28 (2), 한국교육학회, 1-14.
- 고영희(1992).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예언 연구. *학생생활연구*, 6,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19.
- 권대훈(1991). 시험에 대한 자기효능이 학업성과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학생지도연구*, 11, 안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1-32.
- 권용만, 최창섭(1987). 학업부진요인에 관한 대학생의 반응경향 연구. *학생지도연구*, 6, 강릉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53-95.
- 김계현, 김혜란, 손진희, 이상균, 이지수(1995). 서울대학생의 학업성취과정. *학생연구*, 30,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8-37.
- 김남옥(1985). 교과서 읽기 기술훈련이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학생지도연구*, 18 (1),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63-98.
- 김원중(199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관련 요인 탐색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16, 경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72.
- 김정오, 김정희, 이민규, 노안녕, 윤여홍(1982). 학사징계학생과 우수학생의 비교 연구: 학업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학생연구*, 18(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37.
- 김정희(1995).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한국심리학회, 44-69.
- 박경자(1997). 낙관주의, 통제신념, 자기효능이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시험수행에 미치는 영향. *생활연구*, 1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1-54.
- 박인영(1998).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인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봉연(1994). 학사경고자의 특성조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염시창(1992). 대학생의 학습양식 및 공부활동의 효과. *학생생활연구*, 24,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79-109.
- 윤정륜(1991). 학습태도 개발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24(1),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12.
- 이민규(1994).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심리적 특성, 학업습관 및 학습방법 간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9,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18.
- 이민규(1994). 대학신입생의 입학성적과 학업수행에 대한 일 연구. *학생생활연구*, 8, 아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9-55.
- 이수원, 장성수, 김재환(1986).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분석. *학생생활연구*, 4,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64.
- 이형득, 한상철(1987). 학습전략 훈련의 프로그램 시안. *지도상담*, 12,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3-55.
- 이희도, 양병한(1987). 효과적인 읽기 기술 훈련

- 프로그램. 지도상담, 12, 계명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1-19.
- 이희백, 황병철, 장현갑(1996).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공부방법 훈련 프로그램. 학생연구, 27(1),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55-253.
- 최진승, 박영희(1991). 시험불안의 특성과 불안감소 이론 연구. 학생연구, 19(2),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28.
- 탁진국, 이창호, 남승규(1996).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학생지도연구, 11,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84-96.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_\_\_\_\_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2), 117-148.
- Burke, J. P., Midkiff, R. M., & Williams, R. V.(1985). The role of self-esteem in affective reactions to achievement related situa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5, 191-203.
- Capella, B. J., Wagner, M., & Kusmierz, J. A. (1982). Relation of study habits and attitudes to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50, 593-594.
- De Meuse, K. P.(1985, Fall). The life events stress-performance linkag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Human Stress*, 35-40.
- Gadzella, B. M., Ginther, D. W., & Williamson, J. D.(1987). Study skills, learning processes and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Reports*, 61, 167-172.
- Jemmott, J. B., & Magliore, K. (1988).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secretory immunoglobulin 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03-810.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C.(1984). Relation of self-efficacy expect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56-362.
- Lloyd, C., Alexander, A. A., Rice, D. G., & Greenfield, N. S.(1980, Fall). Life events as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Human Stress*, 15-25.
- Multon, K. D., Brown, S. D. & Lent, R. W.(1991).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to academic outcomes: A meta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0-38.
- Russell, R. K. & Petrie, T. A.(1992).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sess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nd ed.(pp. 485-511).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mith, R. J., Arnkoff, D. B., & Wright, T. L.(1990). Test anxiety and academic competence: A comparison of alterna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3), 313-321.
- Winer, B.(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Springer-Verlag New York Inc.

## A study About Developing the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High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Kang-SoonWha   Lea-EunKyoung   Yang-NanMee  
Student Counseling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cademic support system for unsuccessful academic student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c performance between the high achievers and under achievers in the university. To develop academic support system this study was attempted to suggest the model of academic support system and to develop a group program for academic suppor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4 students who have been dropped from the rolls for their low grade(under achievers) and 112 students whose GPA averaged 3.75(high achiev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showed that under achievers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college/major and university, had negative attitude toward their academic study. And their low motivation and self-efficacy, poor study habit, and poor strategy for learning and time management are related to the low academic achievemen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model of academic support system which involve psychological support, strategy for learning and systematically structured support system. In addition, we tried to develop a group program for academic support.